

육군사관학교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기충천한 신입장교들의 장도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늠름합니다.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 여러분의 충정에 뜨거운 격려와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젊은 용사들을 길러 내신 학교장 김충배 장군을 비롯한 교수와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께 축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태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당면한 안보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와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은 착실히 실천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의 국가안보전략과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조정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나는 임기 내에 한·미 동맹의 발전과 병행해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주도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할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는 자주적 정예군사력을 건설하고,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 합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제2차 6자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이전에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갈 확고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미 동맹 강화,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여러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에는 한순간의 방심도, 단 한치의 빈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이 그 선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국군은 이제 우리의 영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서부 사하라에서 전후복구와 구호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코리아 넘버 원'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라크에 '차이툰 부대'가 파견됩니다. 이들은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와 재건의 용사' 들입니다. 이라크 국민의 가슴속에 우리 국민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 줄 것입니다. 이라크 현지에는 아직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서 파병부대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조국의 산하를 맡깁니다. 나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정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날마다 가슴에 새긴 사관생도의 신조와 도덕률을 잘 실천해서 대한민국 국군장교로서의 영광된 사명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